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3월

선교편지 제 161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에 출석하는 '체리' 자매는 두 자녀가 있는 서른 다섯 살의 가정 주부입니다. 열 일곱 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자녀를 돌보는 일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 5년 전부터 디고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새롭게 발견한 '찬양과 가르침'의 은사를 통하여 찬양팀과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 형편과 너무 일찍 결혼한 까닭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언제나 큰 아쉬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디고스 교회의 장학 사역을 통하여 삼십세에 늦깎이 장학생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여 이번 달 3월에 치를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실함과 진지함에 있어서 정말 본이 되는 귀한 자매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흔 두 살의 '에릭' 형제인데, 직업은 목수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내와 두 자녀만 교회에 데려다 주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굶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에릭' 형제의 태도가 좀 남 달라서, 신경이 쓰이곤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돌아가며 읽을 때면, 자신의 순서가 되었음에도 성경을 읽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부인 '체리' 자매에서 언제나 순서를 넘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에, 개인적으로 '에릭' 형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성경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십 대 초반의 나이 이지만, 벌써 '노안'으로 인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하게만 여겼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에릭' 형제 외에도 노안으로 인하여 불편해 하는 교인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여개의 다양한 'Reading Glasses'를 준비하여 '에릭' 형제를 포함하여 안경을 필요로 하는 장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나누어 준 다음 성경공부 시간에도, '에릭' 형제는 안경을 쓰지 않고 여전히 성경을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잘 못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인 '체리' 자매에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 이유는 바로 '에릭' 형제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아 '글씨'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그 이후로는 성경 공부 시간에 돌아 가며 성경 읽는 순서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안경을 받고 많이 당황하고, 생각이 많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에 계속 참여하는 '에릭' 형제가 너무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리' 자매를 통하여, '에릭' 형제가 '글씨'를 읽는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에릭' 형제의 육신의 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밝히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8)**

 이곳은 아직도 한편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관공서에는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전의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과 불편함이 점점 사라지고,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교회도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며 예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으로 활기찬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로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 마을 주민을 향한 적극적인 전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전파가 아니라, 코로나 전파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먹구름이 걷히고 모임이 비교적 자유롭게 됨에 따라,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더욱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그동안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전도 집회를 했던 기억이 마치 오래 전 일처럼 느껴질 정도인 가운데, 디고스 예일교회가 위치한 '띠구만'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마을 집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선교팀이 방문하면 의료선교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과 푸짐한 선물들로 마을 주민을 초청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 주민들을 마을 운동장에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여, 2월 18일 저녁에 처음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고, 특별할 것이 없는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의 찬양팀이 찬양과 기도로 집회를 뜨겁게 만들고, '리자' 자매와 '핀도이' 형제의 간증도 참여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간증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뜨거움이 솟구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귀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후에 주 앞으로 나오기를 작정한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이후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더욱 큰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다시 발로 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주님을 몰라 악한 세력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주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 52:7).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디고스 지역의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